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소량의 복막투석이 잔여신기능의 자연감소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장센터, 내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권선아·정은진·박양숙·윤기태†·강이화*·유태현*·신석균*

배 경 : 투석환자에서 잔여신기능은 혈액투석 환자보다 복막투석 환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복막투석 환자에서도 투석전에 비하여 투석 후에 잔여신기능 감소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잔여신기능을 지닌 복막투석 환자와 비투석 환자간 잔여신기능 감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저자들은 복막투석이 잔여신기능의 자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조기복막투석 환자와 지연복막투석 환자에서 투석시기 및 비투석 시기에서 잔여신기능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복막투석이 잔여신기능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일산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6개월 이상 추적관찰을 하다가 최초 신대체요법으로 복막투석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복막투석을 조기 즉, CCr이 약 15.0 mL/min에 시작한 조기군과 진행된 신부전 상태 즉, Ccr이 약 5.0 mL/min에 시작한 지연군에서 신기능 감소율 (mL/min/moth)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전체 32명 (남자 18명, 여자 14명)의 환자에서 조기군 18명, 지연군 14명이 해당되었다. 조기군에서 평균 복막투석횟수는 1.8 0.4회/일, 2리터/회이었으며, 조기군과 지연군의 기초 잔여신기능은 동일하였지만 (14.92 vs 14.03 mL/min/month, p=ns), 잔여신기능의 감소율은 조기군에서 지연군보다 완만하게 감소하여 복막투석이 잔여신기능의 감소 속도를 지연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0.36 mL/min/month, vs -0.98 mL/min/month, p<0.05). 두 군에서 동일한 잔여신기능 (5.91 vs 5.54 mL/min, p=ns)을 가지고 투석을 시행하는 시기에서도 잔여신기능의 감소율은 지연군에 비하여 조기군에서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0.18 vs -0.22 mL/min/month, p=NS)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소량의 복막투석이 잔여 신기능의 자연 감소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많은 예에서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